

★ 발의안 11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11은 911 응급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11은 소방관 및 경찰관처럼 응급 출동 중 휴식 시간 중에도 호출에 응하도록 응급 의료 기술자(EMT) 및 응급 의료인에게 지불을 하는 장기간의 업계 관행을 법률로 정립합니다.

발의안 11은 최근 California 법정이 장기간 받아들여졌던 이 관행을 중지하고 응급 의료 기술자 및 응급 의료인이 휴식 중에는 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응급 구급차가 휴식 중일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통신 장치가 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11 통신원이 구급차 직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11은 911 응급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11은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 응급 치료 및 긴급 의료인이 해당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해 주십시오.”—Adam Dougherty, MD, MPH, 응급의

911이 필요한 순간에는 단 몇 초의 시간이 환자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응급 치료 기술자 및 응급 의료인은 총격 사고나 자연 재해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구명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의안 11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응급 의료인들이 폭력 예방, 총격 사고, 다수의 사상자 및 자연재해에 대해 FEMA 표준을 충족하는 추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합니다.

“저는 응급 의료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출동하고 싶습니다.

발의안 11은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체없이 응급

치료를 제공하고 거의 모든 재해에 대처하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Daniel Iniguez, 공인 응급 의료인

발의안 11은 응급 치료 및 응급 의료인이 근무 환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 치료 및 응급 의료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발의안 11은 구급차 직원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주가 충분한 직원 수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발의안 11은 응급 의료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근무를 교대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당 급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합니다.

발의안 11은 응급 치료 및 응급 의료인들에게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응급 의료 기술자나 응급 의료인이 되는 것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 직업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요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1은 응급 의료인에게 정신 건강 혜택을 의무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매년 정신 건강 및 복지 교육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합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하는 투표로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응급 의료 기술자와 응급 의료인이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www.YESon11.org를 참조하십시오

ADAM DOUGHERTY, MD, MPH, 응급의

CAROL MEYER, RN, 전임 이사

Los Angeles 자치주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JAISON CHAND, 공인 응급의료인

★ 발의안 11에 반대하는 주장 ★

발의안 11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